

64. 하나님의 교정 & 자기 이해의 중요성.

2015.05.04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 오늘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처벌에 대해서. 나의 처벌은 이 삶의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의 처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야. 모든 것에는 똑같거나 반대되는 반응이 있고, 세상에 결과가 없는 행위는 없어. 누군가의 행동들의 결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때 이것이 내가 그들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려는 처벌이라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그것이 진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 그것은 처벌이 아니야. 그것은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들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조심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들 각각의 주위로 물결이 치는 원이 있어. 그것은 다른 원들과 부딪치고 그 원들과 섞여서 또 다른 원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 원들의 가운데 계시면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는 것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생겨. 은혜가 넘치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심해. 하지만 너희들이 이 원에 중심에 있을때 너희들은 다른 원들에서 멀어져.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빼앗아가고, 공허함, 무질서, 결핍을 만드는 소용돌이처럼 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 이 역동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직 너희들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신부들을 때리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왔어.

나의 자녀들 중 한 명이 이기적이거나 질투심으로 행동할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그들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그것은 삼켜져 호수의 바닥으로 가라앉아. 그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죽어.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정체되어있어.

하지만 선을 행하기위해 손을 뻗고 베풀면, 그 원들은 계속해서 서로 부딪치고, 심지어 온 세상에도 많은 선함이 퍼져.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어서.

내가 징계하고 교정할때 그것은 오직 징계하는 그 사람을 위한 안녕뿐만 아니라 나의 몸 전체를 위해서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길을 배우고 악을 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삶을 빼앗기 때문이야.

나는 악의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야. 그 영혼이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영혼은 징계를 받았을 때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봐. “주님, 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나요?” 만약 그 영혼이 아직도 나에게 진정으로 열려있다면 나는 빠르게 응답해. 그 영혼에 대한 징계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결과로 인해 자신이 만든 피해를 맛보고 느끼게 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나는 그 영혼에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고, 그 영혼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극복할 수 있고, 매 순간 유혹하여 그 영혼을 타락시키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악마들을 정복할 수 있어.

나는 그 영혼이 반드시 견뎌야할 상처를 볼 때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 영혼과 함께 울어. 그리고 이것이나의 신부들이 최악의 희생자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똑같이 해야하는 이유야.

(클레어) 주님, 저희가 무엇인가를 잘못된건지 아니면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있나요?

(예수님) 나는 너희들의 양심 안에서 일해.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죄가 행해진 내면의 어둠과 슬픔을 느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을 거야. “잠깐만.. 여기서 너가 고려해야할 것이 있어..” 이것은 부드러운 죄의식이고 가혹한 비난이 아니야.

이것은 감정의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식을 주는 거야.. 그 영혼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 영혼이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깨달을때까지 그 생각이 커질수록 죄의식도 커져. “이일은 일어났어. 왜냐하면..”

그런다음 나는 그 영혼의 행동으로 인해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나는 그 영혼이 자신의 죄의 결과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그 영혼이 문제에 빠지거나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내가 화났기 때문이 아니야. 아니, 그것은 그 영혼의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고 그 영혼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야.

너희들이 공격을 받을때에는 부드러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마치 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난 비난을 느낄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악마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경우야. 너희들은 공격을 받고, 비하당하고, 너희들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감을 느껴. 이것이 악마의 영역에서 너희들에게 보내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죄의식은 희망을 가져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하는 열망이 생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대한 슬픔. 그것은 너희들의 양심이 나의 마음에 따라 민감하고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측면을 보기 시작해: 질투, 원한, 게으름, 보복. 보기 추한 것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너희들은 보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만약 너희들이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이것들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어. 즉, 너희들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봐야해. 그러면 너희들의 동기가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너희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어둠을 너희들이 보기 시작해. 너희들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고, 너희들의 물결의 중심에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결을 볼 수 있어.

나의 신부들아, 항상 조심해라. 사탄은 죽이고, 흠치고, 파괴하기위해 와. 너희들이 그 본성의 생각을 즐길때마다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 선하고 희망을 주는 것을 파괴하려고하는 사탄과 동맹을 맺지 말고, 너희들의 운명을 그와 함께 하지 말아라.

사탄의 제안에 저항하고 너희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너희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라. 나는 어떤 처녀들의 등불의 기름이 채워지고 있고 어떤 처녀들의 등불의 기름이 비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드라마를 보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과 휴거 후에 남겨지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선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등불이 올바르게 손질되었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나의 종들에게서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나만이 오직 심판할 자격이 있어. 너희들이 나의 자리에 들어가 나의 권위를 빼앗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너희들 사이에 여전히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있는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지만 너희들은 아직 너무 미성숙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해” 또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해.” 또는 “나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야?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다고 말해. 이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돌아가는 것을 위해 너희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온전한 가르침이 부족한 이유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아이디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야. 제발, 제발, 조심해라..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거기에는 치러야할 대가가 있고, 나는 징계로 너희들을 교정하는 것보다 축복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

나는 이 가르침으로 이번주에 너희들 각각에게 찾아갈 거야.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징계가 아니라 부드럽게 죄의식을 줄 거야. 왜냐고?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부드럽게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만약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불쾌하게 만들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면, 나에게 대한 너희들의 사랑으로 너희들은 그것을 멈출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과 나에게 좋을 거야.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나의 축복을 받아라. 용기를 가져라.